

충남리포트 제121호

ChungNam Report

2014. 08. 05.



CONTENTS

< 요약 >

1. 들어가는 말
2.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의미
3. 충청남도과 서산시 · 당진시의 준비 상황
4. 충청남도의 향후 과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장, harrison@korea.kr

최영화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yhc@cdi.re.kr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지역 방문을 맞아 이번 방문의 의미와 가치를 조망하고 천주교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사회의 통합, 세계적 명소화라는 충청남도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요 약

-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충남지역 방문의 의미와 가치를 조망하고 충청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은 우리나라의 정치 ·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방문의 의미와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 첫째, 교황은 한국 천주교 선조들이 순교를 통해 증명한 사랑과 평화, 공존의 정신에 대한 추념과 찬사를 보내기 위해 방문함. 이를 통해 충남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임.
 - － 둘째, 교황은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최근 들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증진에도 큰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 － 셋째, 교황은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눔과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삶을 호소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앞길을 축복할 것임.
- 교황 방문을 계기로 충청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 － 첫째, 성지와 지역 주민이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천주교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사회의 통합이 필요함.
 - － 둘째,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을 전 세계인의 치유와 희망의 쉼터이자 평화와 공존, 인권을 배우는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야 함.
- 결론적으로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의 명소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의 모범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분으로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청년대회와 한국청년대회 기간 중에 아시아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오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함.
-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문 이후, 25년 만의 일이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즉위 이후 첫 아시아 방문이자 한국 단독 방문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음.
- 이에 따라 충청남도와 서산시, 당진시는 교황의 방문을 환영하며 정중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더불어 우리지역의 성지를 찾아오는 행사 참가자와 순례객 및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교통, 숙박, 안내 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나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그 방문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새겨봄으로써 충청남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함.
-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천주교 성지와 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과제도 고민해보고자 함.

- 교황의 방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것이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알 수 있음.
- 그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를 보면, 신앙의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단순한 성직자의 모습을 넘어, 갈등과 반목의 현장을 몸소 찾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깊은 반향을 일으켜 오고 있음. 따라서 아시아청년들을 만나기 위한 이번 한국 방문 중에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특히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세월호 사고가 보여주듯이 물질주의에 치우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가 교황의 방문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보다 우위에 두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찾길 바르게 됨. 더불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교황 방문을 계기로 진정한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길 기대함.

□ 교황 방문의 세 가지 의미

- 교황의 방한을 준비하고 있는 ‘천주교 교황방한 준비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인 조규만 주교가 지난 5월 3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교황 방한 특별 심포지엄’에서 한 다음 발언은 교황의 방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

-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의 ①과거를 축하하고 우리의 ②현재를 위로하고 ③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오는 것”.
- 즉 “이 땅의 젊은이들과 아시아의 젊은이들을 만나고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평화와 화해를 전하며 우리 교회 순교자 124위를 시복하고자 먼 길을 오시는 것”임.

1) 우리의 과거를 축하

- ‘우리의 과거를 축하한다’ 함은 구체적으로 순교자 124위에 대한 시복과 충남지역의 성지인 당진 솔피와 서산 해미를 방문하는 것으로 드러남.
- 이는 우리 천주교 선조들이 순교를 통해 증명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공존의 정신에 대한 추념과 찬사를 보내는 것을 의미함.
- 우리 선조들이 150여 년 전 국가폭력에 의해 박해받고 순교한 역사는 아프고 슬픈 역사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을 거부하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드러내는 것임. 따라서 이 자랑스러운 충남의 역사와 전통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2) 우리의 현재를 위로

- ‘우리의 현재를 위로한다’라 함은 위안부 할머니들도 초청되는 명동성당에서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기원하기 위한 미사’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대전에서의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통해 밝혀짐.
-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한 위로와 치유,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평화와 화해를 전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최근 들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평화에도 큰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는 교황 자신의 말씀처럼 자본주의와 이기주의, 물신주의 등 왜곡된 세계관과 그 한계가 낳은 위안부 할머니로 대변되는 전쟁의 상처와 세월호 참사 등 이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 가진 것을 나누는 삶에 대한 강렬한 요청이 우리에게 깊은 반향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임.

3) 우리의 미래를 축복

- ‘우리의 미래를 축복한다’함은 이 땅의 젊은이들과 아시아의 젊은이들을 만나기 위해 당진 솔피와 서산 해미의 아시아·한국 청년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래의 주인공인 아시아와 한국의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물질주의적 가치에 둘러싸여 있는 어려운 현실을 넘어 나눔과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삶을 추구할 것을 호소하고 더불어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앞길을 축복하기 위함임.
- 이처럼 교황께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진정한 개혁과 진보에의 열망이 우리 한국 사회와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교황 방문의 가치

- 교황의 방한과 충남 지역 방문이 “단지 하나의 이벤트이거나 형식적으로 큰 잔치가 아니다”(천주교 서울대교구, 2014.6.29)라는 교황청 대변인 롬바르디(Federico Lombardi) 신부의 언급처럼, 교황의 방문은 우리나라에 가슴 깊은 위로와 진정한 평화와 화해,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충청남도와 서산시·당진시의

준비 상황 ◀

03

- 충청남도는 교황 방문의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천주교 대전교구는 물론 교황방한 정부지원위원회, 관련 시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교황방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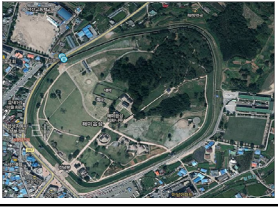
- 대규모 행사의 안전한 개최, 방문객 편의 제공, 교황의 영접에 중점을 둠.

□ 교황의 충남 방문 행사 개요

- 프란치스코 교황이 충남을 방문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아시아 청년들의 축제인 아시아청년대회(Asia Youth Day: AYD)와 한국청년대회(Korean Youth Day, KYD)가 열리는 장소가 내포지역이기 때문임.

- 내포지역에는 그 역사적 토대를 바탕으로 천주교 성지들이 조성되었고, 아시아청년대회가 그 장소들(솔뫼성지,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열리게 됨으로써 교황의 방문이 충남의 방문으로 이어진 것임.

〈표 1〉 교황의 충남 방문 행사 개요

일시	장소	행사 내용	행사장 모습
8월 15일(금)	솔뫼성지(당진)	• 아시아·한국청년들과 만남(6천명) ※ 내방객 20~25천명 추정	
8월 17일(일)	해미성지(서산)	• 아시아 주교들과 면담(50명) ※ 천주교 내부행사	
	해미읍성(서산)	• 아시아·한국 청년대회 폐막미사 ※ 내방객 50~60천명 추정	

출처 : 충청남도(2014.07.22), 교황 방문 준비 세부계획.

1) 교황 방문 지원 방향

- 아시아청년대회와 한국청년대회 행사를 주관하는 천주교 대전교구와 각 행사가 열리는 시, 도, 경찰청, 교육청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교황 방문을 준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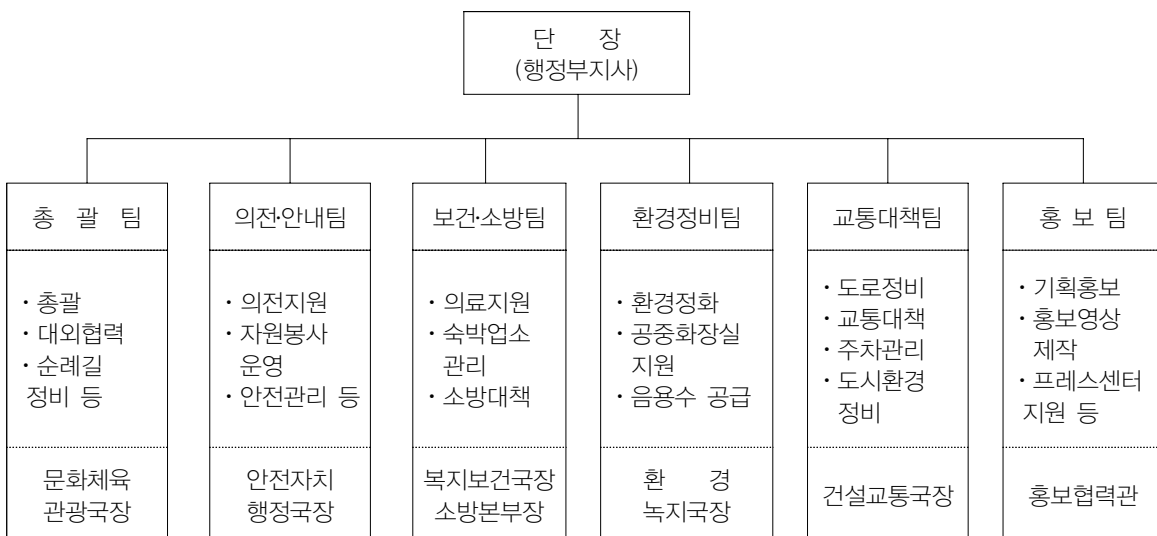
〈표 2〉 주체별 교황 방문 지원 내용

주체	준비 내용
천주교 대전교구	· 아시아·한국 청년대회 행사 추진 – 행사 참가자 6천명에 대한 교통, 숙박, 이동, 행사장 운영 등
서산시·당진시	· 대회 관련 순례객, 관광객 방문에 따른 기초 공공서비스 지원 – 교통 안내, 임시주차장, 화장실, 급수대, 응급의료지원 등
충청남도	· 교황 방문 준비 관련 광역적 공공서비스 지원 – 대중교통망·환경정비, 소방안전, 성지순례길, 홍보 등

출처 : 충청남도(2014.07.22), 교황 방문 준비 세부계획.

- 충청남도에서는 교황 방문 준비 전담 T/F(6개 팀)를 구성하여 운영함.
- 또한 교황 방문 행사 기간 중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행사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상황실 및 현장상황실과 연계하여 현장상황실 내에 행사CP<안내/편의 지원, 시설안전/교통관리, 응급의료, 질서유지(경찰협조)>를 운영할 계획임.
- 솔피성지(8.14~15/ 아레나광장 접견실), 해미읍성(8.16~17/ 읍성내 동헌)

〈그림 1〉 충청남도의 교황 방문 준비 지원체계



출처 : 충청남도(2014.07.22), 교황 방문 준비 세부계획.

2) 분야별 준비 현황

(1) 참가자 편의지원

- 행사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행사기간(8월 15~17일) 동안 행사장과 임시 주차장 등 다중 집합지역에 종합안내소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며, 급수를 지원함.

〈표 3〉 편의시설 지원 사항

구분	장소	내용
종합안내소 설치	서산, 당진	· 행사안내, 급수지원, 유모차대여, 의료지원 등 · 서산 6개소, 당진 5개소
이동화장실 설치	해미읍성, 솔뫼성지	· 행사장 안쪽에 컨테이너형 이동식 화장실 설치 · 해미읍성 54동, 솔뫼성지 30동
급수 지원	해미읍성, 솔뫼성지	· 행사 참가자의 안전 급수를 위해 상수도 설치 · 해미읍성 6개소, 솔뫼성지 3개소 · 음용수 준비(서산 150천병, 당진 60천병)
자원봉사자 운영	서산, 당진	· 지역단체 중심으로 3,710명 모집 확보 및 운영 · 행사장 안내, 주차안내, 환경정비, 미아보호소 운영 등 · 서산: 3,400명, 당진: 310명

출처 : 충청남도(2014.07.22), 교황 방문 준비 세부계획.

(2) 소방안전 및 시민 응급의료

- 안전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행사장에 소방력을 배치함으로써 철저한 사전 소방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행사기간 중 긴급상황에 대비함.
- 행사 참가자 및 내방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응급의료소를 지원하고, 병·의원, 약국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함.

〈표 4〉 응급의료 지원 사항

구분	장소	내용
현장 응급의료소	해미읍성, 솔뫼성지	· 의료소 18개소, 구급차 28대, 인원 172명 · 해미성지 1개소, 해미읍성 10개소, 솔뫼성지 7개소
응급환자 이송병원	해미읍성, 솔뫼성지	· 해미읍성: 천안단국대병원,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순천향병원 · 솔뫼성지: 천안단국대병원, 당진종합병원, 당진성모병원, 순천향병원
24시간 응급실	서산, 당진	· 서산 2개소: 서산의료원, 중앙병원 · 당진 2개소: 당진종합병원, 합덕아산병원
비상약국	서산, 당진	· 서산: 6개소, 당진: 7개소 ※ 무료 응급약국 운영: 솔뫼성지 응급의료소

출처 : 충청남도(2014.07.22), 교황 방문 준비 세부계획.

(3) 교통대책

- 주요 교통지점 및 행사장 주변에 교통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 안내를 실시하며, 행사장 주변에 임시주차장 및 셔틀버스를 운영함.

〈표 5〉 교통대책 지원 사항

구분	장소	내용
교통안내판 설치 및 안내	서산, 당진	· 주요 교통지점 및 행사장 주변에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 서산 100개, 당진 140개 · 폐막미사에 따른 해미읍성 주변 교통안내(8.16~17) - 해미IC 인접도로, 해미읍성 외곽도로(안내원 1,500명)
임시주차장 운영	서산, 당진	· 서산 해미읍성: 약 65천 명 수용 가능 - 해미읍성 주차장, 서산고교 운동장, 홍성일반 산업단지 · 당진 솔피성지: 약 55천명 수용 가능 - 국지도 70호선 내, 우강송산도시개발지, 합덕일반지방산단
셔틀버스 운영	서산, 당진	· 서산 해미읍성: 셔틀버스 75대 운영(8.17) - 홍성~해미(50대), 서산 시내~해미(25대) · 당진 솔피성지: 셔틀버스 18대 운영(8.15) - 합덕터미널~솔피(3대), 합덕산단~솔피(15대)

출처 : 충청남도(2014.07.22), 교황 방문 준비 세부계획.

(4) 주요 기반시설 정비

- 당진 솔피성지와 서산 해미성지·읍성의 도로와 시가지 등 주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내방객의 주요 이동로 및 성지 순례길의 환경정화를 추진함.

〈표 6〉 행사장 이동로 및 인근 시가지 정비 사항

구분	장소	내용
기반시설 정비	서산, 당진	· 서산 해미성지·읍성 - (구)해미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 해미읍성~해미성지 구간(1.2km) 도로 정비 - 해미읍성 정비(아시아·한국청년대회 폐막미사) · 당진 솔피성지 - 우강초등학교 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 완료 - 우강초등학교~솔피성지 구간(0.6km) 도로 정비 - 아시아·한국 청년대회장 성토(20천㎡) 및 행사천막 시공
시가지 환경정비	서산, 당진	· 서산 해미 시가지 - 해미읍성 주변 노후간판 131개소 정비 - 해미면 내 도시 공공구조물 디자인 개선 - 행사장 주변 상가 인도 적치물건 정비 · 솔피성지 및 해미읍성 주변 꽃길 조성·꽃탑 설치 · 내방객 주요 이동로 및 성지·순례길 환경정화 추진

출처 : 충청남도(2014.07.22), 교황 방문 준비 세부계획.

(5) 천주교 성지 순례길 정비

- 한국 천주교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숨 쉬고 있는 내포 천주교 순례길은 김대건신부의 탄생지인 솔미성지에서부터 서산의 해미순교성지까지 내포 천주교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방문객들과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포 천주교 순례길에 안내 표지판과 방향 표지판을 설치함.
 - 안내표지판(1개소), 방향 표지판(40개소), 익투스 표지판(215개소).

〈표 7〉 주요 순례길 정비 코스

구분	코스		
주코스	솔미성지-함덕성당-신리성지-배나드리-덕산-한티고개-해미읍성-해미성지		
부코스	①공세리성당-솔미성지	②신리성지-여사울	③홍성성당-홍주성

출처 : 충청남도(2014.07.22), 교황 방문 준비 세부계획.

〈그림 2〉 순례길 정비 코스



출처 : 충청남도(2014.07.22), 교황 방문 준비 세부계획.

04

▶ 충청남도의 향후 과제

□ 충남지역의 세계적 명소화를 위한 과제

-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지역의 방문객 증가에 따른 단순한 경제적 이해득실의 관점을 넘어 삶의 터전인 지역공동체가 더욱 발전하고, 충남이라는 지역이 세계인에게 희망을 주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생각할 수 있음.

1) 천주교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사회의 통합

- 충남지역의 성지와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삶의 공동체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천주교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우선, 교황님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지역의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을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함.
- 이를 통해 천주교 성지와 순례길이 지역주민들과 유리됨 없이 지역과 마을 발전의 원동력이자 삶의 근간이 됨으로서 성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진정한 공동체 회복의 본보기로 만들어 나갔으면 함.

〈그림 3〉 충남의 성지 위치



출처 : 충청남도 관광산업과(2014), 내포 천주교 성지를 찾아서.

〈표 8〉 충남의 천주교 성지

시군명	성지명
천안	성거산 성지
공주	황새바위 성지, 장깃대 나루, 중동 성당, 충청감영 옥터, 수리치골 성지, 유구 요골 공소
보령	서짓골 성지, 갈매못 성지
아산	공세리 성당
서산	해미 순교 성지, 해미 읍성, 강당리 교우촌, 미력별 교우촌, 상흥리 공소(가재공소)
당진	신리성지, 솔뫼성지, 합덕성당, 면천 동헌과 옥 터, 신리 무명 순교자의 묘, 신평 성당순교자 기념비, 신평 원머리 순교자 묘, 신평 음샘이 교우촌, 황무실 교우촌
금산	진산성지, 진산 장고터와 막헌리, 진산 진밭들 교우촌, 진산 성지(지방리 공소)
부여	삽티 성지, 지식리, 홍산 도양골 교우촌
서천	산막골 교우촌
청양	다락골 성지, 정산 관아와 형장 터
홍성	홍주 순교 성지, 홍주 관아와 진영, 홍주 생매장 터와 안장 터, 홍주 옥 터
예산	여사울 성지, 삽교 배나드리 교우촌, 대흥 관아 터

출처 : 충남발전연구원(2014.07.11), 충남인포그래픽.

◎ 또한, 내포지역 천주교 역사와 지역사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 교황 방문의 의미와 가치의 지역 내재화 기반을 조성해야 함.

– 지난 5월과 7월, 2회에 걸쳐 교황의 충남 방문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충남지역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그림 4〉 교황 방문 관련 행사



(좌) ‘충남 천주교성지의 교황 방문과 대응 방안’ 워크숍(2014.05.08)

(우)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가치’ 심포지엄(2014.07.02)

- 향후 천주교 대전교구 내포교회사연구소, 가칭)충남도립도서관 내포학연구소, 시군 문화원, 지역 대학, 역사학계의 협력 연구를 통해서 내포지역 천주교회사와 지역(향토)사의 통합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내포문화권을 백제문화권, 기호문화권에 비견하는 대표적인 충청지역 문화권으로 재정립하여 지역 역사문화를 창달할 필요가 있음.

2) 충남을 치유와 희망의 공간으로 명소화

- 교황이 다녀간 곳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모든 이들이 찾아와 명상하고 치유하며 희망을 얻고, 더불어 평화와 공존, 그리고 진정한 화해정신을 배워갈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천주교를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 휴식과 배움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천주교 성지와 순례길에 대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 힘써 나가야 함.

〈그림 5〉 내포 천주교 순례길과 스페인 산티아고길



출처 : (좌) 충청남도 문화예술과(2014), 교황방문 준비 세부계획.
(우) 산티아고 관광안내소(www.santiagoturismo.com)

- 이로써 생생히 꿈틀대는 우리의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이 종교인들에게는 구원과 순례의 길이 될 것이고, 비종교인들에게는 치유와 희망의 쉼터,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이 될 것임.

□ 교황 방문 이후 충청남도가 나아갈 방향

- 교황의 충남 방문을 계기로 내포지역의 자랑스러운 천주교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지와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함.
- 또한, 천주교를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 모두가 이곳을 찾아와 명상하고 치유하며 희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공존, 나눔과 배려 등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어야 함.
- 이를 위해 이번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남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유 병 덕 과장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041-635-2410, harrison@korea.kr

최 영 화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041-840-1255, yhc@cdi.re.kr

◆ 참고 자료 ◆

김정환(2014), 교황의 충남 방문 배경과 의미, 2014년도 교황 방문 심포지엄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가치〉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천주교 서울대교구(2014.06.29), 〈서울주보 특보〉 제1962호, 가톨릭출판사.

충청남도 관광산업과(2014), 내포 천주교 성지를 찾아서.

충청남도 문화예술과(2014), 교황방문 준비 세부계획.

산티아고 관광안내소(www.santiagoturismo.com)

프란치스코 교황, 충남 천주교성지에 오시다

당진 솔외성지, 서산 해미순교성지 · 해미읍성 방문



I 교황 방한일정

방문일	시간	주요행사	장소
8.14 (목)	12:00	개인미사, 환영식, 대통령 예방	주한교황대사관, 청와대 등
8.15 (금)	10:30 13:30 17:30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아시아 청년들과 오찬 아시아 청년들과 만남	대전월드컵경기장 대전가톨릭대학교(세종) 당진 솔외성지
8.16 (토)	08:55	서소문순교성지 참배 124위 시복미사 장애인요양시설 방문	서울 광화문 음성꽃동네
8.17 (일)	11:00 16:30	아시아주교들과의 만남/오찬 제6회아시아청년대회 폐막 미사	서산 해미순교성지 서산 해미읍성
8.18 (월)	09:00 09:45	종교지도자와 만남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서울대교구청 명동성당

✓ 세계 지도자 1위,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례명 : 안드레아

생년월일 : 1936년 12월 17일

출생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013년 3월 13일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

충남 지역 천주교 성지 안내

조선천주교회 신앙의 못자리이자 심장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와 내포의 사도 이준창의 탄생지인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였고, 전국 곳곳으로 신앙과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한 곳이다.



당진 : 합덕성당

1929년 신교덕양식에 의해 건축된
충남기념물 제145호로 지정된 성당



당진 : 신리성지

당진 합덕읍에 위치한 조선 천주교의 요람



서산 : 해미성지

서산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순교지(1790~1866)



보령 : 갈매못

바닷가에 위치한 순교지



당진 : 솔외성지

한국 첫 사제 김대건 신부 탄생지



예산 : 여사울

'내포의 사도' 이준창의 탄생지



천안 : 성거산성지

선교사들의 은둔 선교전초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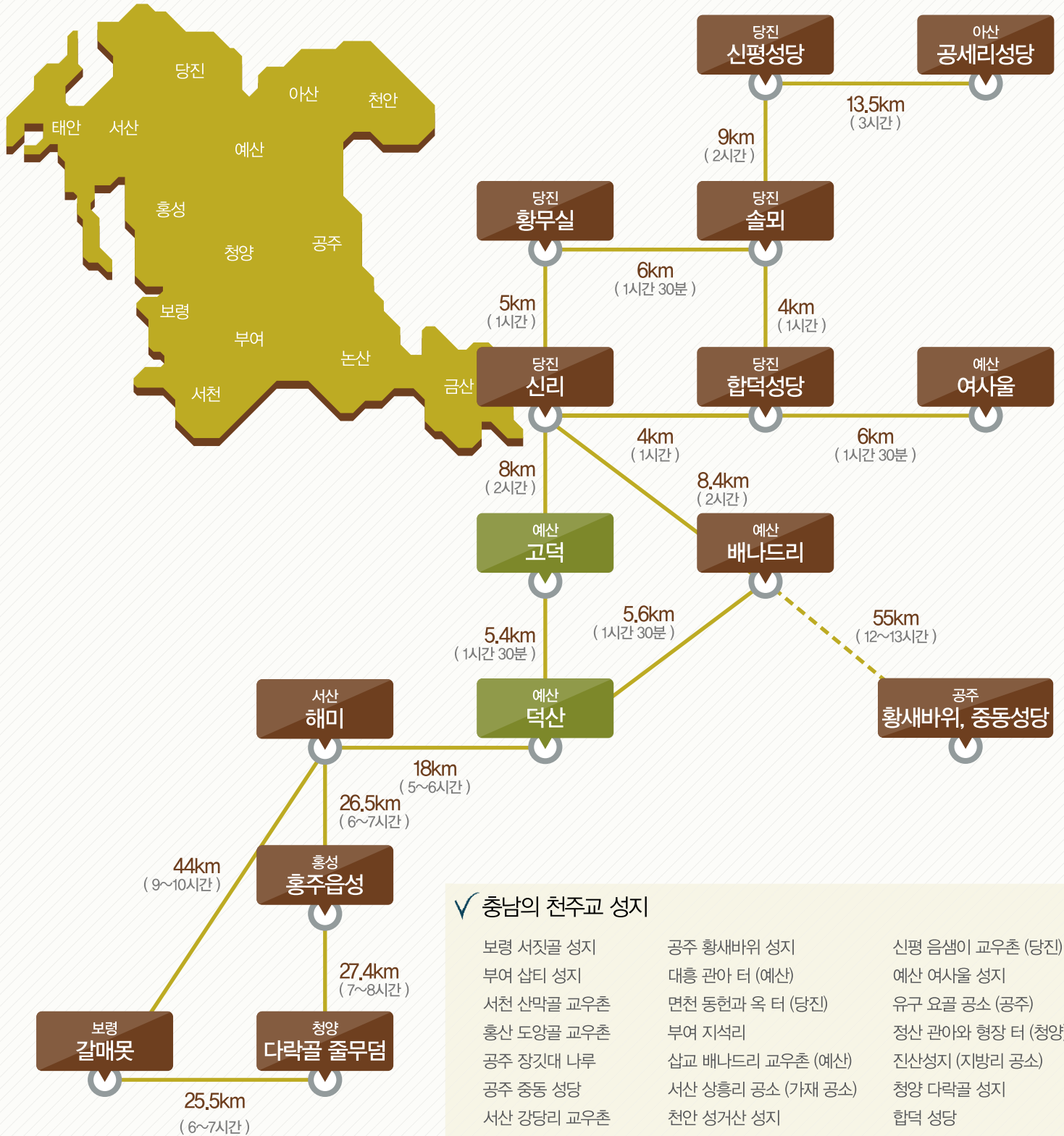
공주 : 황새바위성지

충청도 감영에 체포된 천주교도들을
처형한 유적지



충남지역 천주교 성지 도보 순례길

솔미 · 합덕 · 신리 · 여사울 등 도보 성지순례 안내



✓ 충남의 천주교 성지

- | | | |
|-------------|-------------------|------------------|
| 보령 서짓골 성지 | 공주 황새바위 성지 | 신평 음샘이 교우촌 (당진) |
| 부여 샛티 성지 | 대흥 관아 터 (예산) | 예산 여사울 성지 |
| 서천 산막골 교우촌 | 면천 동헌과 옥 터 (당진) | 유구 요골 공소 (공주) |
| 홍산 도양골 교우촌 | 부여 지식리 | 정산 관아와 형장 터 (청양) |
| 공주 장기대 나무 | 삽교 배나드리 교우촌 (예산) | 진산성지 (지방리 공소) |
| 공주 중동 성당 | 서산 상흥리 공소 (가재 공소) | 청양 다락골 성지 |
| 서산 강당리 교우촌 | 천안 성거산 성지 | 합덕 성당 |
| 서산 미력별 교우촌 | 솔미 성지 (당진) | 해미 성지 |
| 진산 장고터와 막현리 | 공주 수리치골 성지 | 해미 읍성 |
| 진산 진밭돌 교우촌 | 신리 성지 (당진) | 홍주 관아와 진영 |
| 보령 갈매못 성지 | 신리 무명 순교자의 묘 (당진) | 홍주 생매장 터와 안장 터 |
| 아산 공세리 성당 | 신평 성당순교자 기념비 (당진) | 홍주 옥(獄) 터 |
| 공주 충청감영 옥터 | 신평 원머리 순교자 묘 (당진) | 당진 황무실 교우촌 |



2014년도 충남리포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인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효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